2027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 · KU논술우수자)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4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40점, 401~600자)　　문제 2 (60점, 801~1,000자)
3.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칸에 작성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건국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 기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건국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두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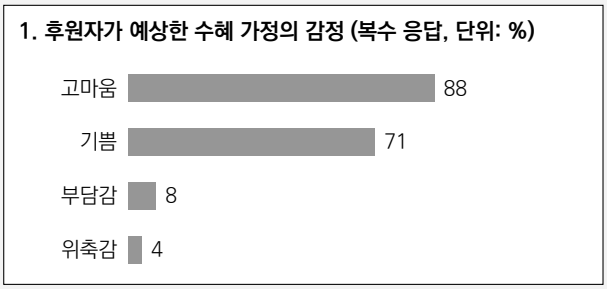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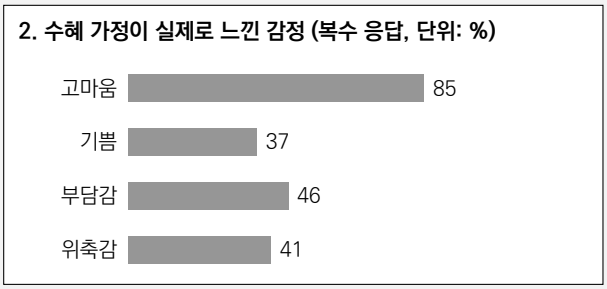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르셀 모스(1872~1950)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로, 여러 사회의 선물 교환 관습을 비교하여 『증여론』을 썼다. 그가 살펴본 사회들에서는 잔치에 초대받고도 가지 않거나 내민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상대를 모욕하는 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는 선물이 겉보기에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어야 할 의무, 받아야 할 의무, 되갚아야 할 의무라는 세 가지 의무로 짜여 있다고 보았다.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물건 하나를 사양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내민 관계 자체를 물리치는 일로 받아들여지며, 받은 선물을 갚지 못한 사람은 준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주고받음이 오가며 사람들을 서로 묶어 주는 이러한 원리는 흔히 '호혜성'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호혜성의 관점에서 보면 선물은 받는 사람의 처지를 바꾸는 힘을 지닌다. 되갚을 길이 열려 있는 선물은 두 사람을 대등한 관계로 이어 주지만, 되갚을 수 없는 선물이 한쪽에서만 계속 흘러가면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고마움과 함께 빚진 마음과 위축감이 쌓인다. 주는 쪽의 호의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받는 쪽을 묶어 두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공동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을 살펴볼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같은 도움이라도 그것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만 흐르는지, 받는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건넬 자리가 있는지에 따라 관계 속에서 지니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 한 복지 재단이 지원받은 가정과 후원자를 조사하였다. 지원받은 가정의 60%는 '기회가 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답하였으며, 바라는 지원 방식은 '봉사 등으로 돌려줄 기회가 있는 지원'(41%)이 '익명으로 조용히 받는 지원'(33%)보다 많았다.





※ 두 도표 모두 같은 네 감정에 대한 복수 응답. 이 자료는 문항을 위한 가상의 조사 결과이다.

[다] 우리 몸은 바깥 환경이 바뀌어도 체온이나 혈당량 같은 내부 상태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되먹임'이다. 되먹임이란 어떤 과정의 결과가 다시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여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음성 되먹임, 결과가 원인을 더욱 부추겨 변화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양성 되먹임이라고 한다.

식사 후 혈당량이 높아지면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 혈당량이 낮아지고, 혈당량이 낮아지면 인슐린 분비도 줄어든다. 체온이 오르면 땀을 흘리고 피부의 혈관을 넓혀 열을 내보내며, 체온이 내려가면 몸을 떨어 열을 만들어 내는 것도 음성 되먹임의 예이다. 이처럼 음성 되먹임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거슬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므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양성 되먹임은 작은 변화를 점점 크게 만든다.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자궁 입구를 누르면 그 자극이 뇌에 전달되어 옥시토신*의 분비가 늘어나고, 옥시토신은 자궁 근육을 더 강하게 수축시킨다. 수축이 강해질수록 자궁 입구를 누르는 자극도 커지므로 옥시토신의 분비는 더욱 늘어난다. 상처가 났을 때 혈소판이 모여들면서 다른 혈소판을 끌어들이는 물질을 내보내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모여든 혈소판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혈소판이 끌려와 상처를 막는 덩어리가 빠르게 커진다. 이러한 양성 되먹임은 아기가 태어나거나 상처가 막히는 것처럼 고리를 끊는 결

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멈춘다. 그래서 양성 되먹임은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를 이루어야 할 때 쓰이지만, 고리를 끊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 옥시토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자궁 근육의 수축을 일으킨다.

[라] **※ 앞부분의 줄거리:** 마름인 점순네의 땅을 부쳐 먹고 사는 집의 아들 '나'는 열일곱 살이다. 오늘도 '나'의 집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쫓겨 피를 흘리자, '나'는 점순이가 일부러 닭싸움을 붙였다고 생각하며 나흘 전의 일을 떠올린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체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앝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께를 할금 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홱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쌔근쌔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횡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쌔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 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닭벼슬을 좋아한다면서도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홰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꾀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여 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시는 용을 못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횃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중략)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고 앞에서 또 푸드득, 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횃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뭇지게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허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 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히 일 잘 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뭣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알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빼지 않을 수 없었다.

*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지를 관리하는 사람.
* 쌩이질: '씨양이질'의 방언. 한창 바쁠 때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짓.
* 호드기: 봄철에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이나 짤막한 밀짚 토막으로 만든 피리.
* 동백꽃: 여기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생강나무를 이르는 말로, 이른 봄에 노란 꽃이 핀다.

[문제 1]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하시오. [40점, 401~600자]

[문제 2] [가]의 '호혜성'과 [다]의 '되먹임' 개념을 활용하여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시오. [60점, 801~1000자]

〈끝〉